

프로야구 출범 42년, 1만 세이브까지 ‘-4’ 남았다

삼성 1374개 1위...LG·두산 뒤이어
현역 오승환 394개로 기록 경신 중

1982년 출범해 올해로 42번째 시즌을 보내는 KBO리그에서 통산 1만 번째 세이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5일까지 KBO리그 통산 세이브 숫자는 9996개로 4번만 더 세이브가 나오면 의미 있는 이정표가 세워진다.

팀별로는 삼성 라이온즈가 1374개로 가장 많고, LG 트윈스가 1278개로 2위, 두산 베어스가 1209개로 3위다.

삼성은 ‘끝판왕’ 오승환이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한다. 삼성 팀 전체 세이브의 30%에 육박하는 394세이브로 뒷문을 지키고 있다. 2006시즌 세운 47세이브는 KBO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으로 남아 있다. 오승환은 앞으로 세이브 6개만

추가하면 전인미답의 KBO리그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한다.

KBO리그 역대 세이브 2위는 손승락으로 271개를 기록하고 현역에서 은퇴했다.

현역 선수 가운데는 정우람(한화 이글스·197세이브)과 김재운(kt wiz·166세이브)이 뒤를 따르고 있어서 오승환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LG도 한 팀에서만 활약한 ‘노승’ 김용수가 227개의 세이브를 남겼고, 데뷔 7년 차에 139세이브를 적립한 고우석도 리그를 대표하는 소방수로 자리 잡았다.

오승환과 손승락의 뒤를 이어 임창용(258개), 김용수, 구대성(214개) 등이 KBO리그 세이브 역사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겼다.

통산 100세이브 이상 기록한 선수는 21명이며 이중 현역은 오승환을 비롯해 7명이다.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은 394세이브로 KBO리그 역대 세이브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미국 남자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29일 로마서 개막

월드컵·슈퍼볼 버금가는 초특급 이벤트
양팀 12명씩 출전...양보 없는 혈전 예고

열광적인 팬들이 벌이는 광란의 응원으로 떠들썩한 유럽-미국 남자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이 29일(한국시간) 오후부터 이탈리아 로마의 마르코 시모네 골프 & 컨트리 클럽에서 사흘 동안 열린다.

1927년 미국과 영국의 골프 대항전으로 시작해 1979년부터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미국에 맞서는 형식으로 바뀐 라이더컵은 월드컵 축구나 슈퍼볼에 버금가는 인기와 주목을 받는 스포츠 이벤트다.

특히 홈 관중의 응원은 원정팀에 가차 없는 야유와 적대감을 표출해 골프가 신사의 스포츠라는 세평은 라이더컵에서는 통하

지 않는다.

양 팀 각각 12명씩 24명의 출전 선수 역시 투어에서 함께 땀과 땀으로 상대 선수에게 예의를 지키기는커녕 자극하거나 화를 돋우는 언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만큼 라이더컵은 미국과 유럽 골프의 자존심을 놓고 양보 없는 열전을 벌이는 무대다.

통산 전적에서는 미국이 27승 2무 14패로 한참 앞섰다. 하지만 영국이 아닌 유럽 전체가 힘을 합친 1979년 이후만 따지면 유럽이 11승 1무 9패로 우위다.

2021년 유럽을 물리친 미국은 2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유럽은 2018년 우승 이후 5년 만에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라이더컵에서는 원정팀이 라이더컵을 차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광란의 응원을 포함한 홈 텃세를 극복하기가 벅찬

데다 대개 대회 코스를 홈 팀에 유리한 곳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2018년 프랑스 대회 때 유럽은 전장이 짧지만 물과 병커가 곳곳에 도사려 난해한 파리 근교 르 골프 나쇼날을 대회장으로 선택해 우승했다.

2021년에는 미국이 전장이 길어서 장타자에 유리한 위스콘신주 휘슬링 스트레이츠에서 대회를 열어 유럽을 격파했다.

올해 대회 코스인 마르코 시모네 골프 & 컨트리클럽은 유럽 선수들에게 아주 익숙하다. 유럽투어 이탈리아 오픈을 네 번이나 치렀다. 파72인데 전장이 6천343야드에 불과해 조금이라도 겨냥한 대로 볼이 가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코스다. 복잡한 코스에서 경기 경험이 많은 유럽 선수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성적 부진 남기일 감독 사임 K리그 제주, 정조국 대행 선임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의 남기일 감독이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놨다. 제주 구단은 26일 “최근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남기일 감독이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임을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남기일 감독은 2020년 제주의 16대 사령탑으로 부임해 곧바로 팀을 K리그2 우승으로 이끌고 K리그1로 승격시켰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두 시즌 연속 파이널A 진출을 이끌었다. 올 시즌에는 5월 한 달 동안 4승 1무로 승점 13점을 쌓아 담으며 팀을 2위로 이끌고 ‘이달의 감독’에 뽑히기도 했지만, 거짓말 같은 하락세로 6~9월 치른 1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다.

제주 구단은 정조국 수석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선임했다.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 추천도서 북코리아 전화 02-704-7840 팩스 02-704-7848	군사교리 인사이트 천민권 지음	김정일의 통치전략, 빅데이터로 풀다 송유계 지음	현봉학 현봉학 지음	군사과학총서 3 로켓과 미사일 이진호 지음	6·25전쟁과 미국 선교사 카이 인 앨리슨 헤이가 지음 박상명 옮김 / 박영수 감수	이순신의 일기 박혜일 · 최희동 · 배영덕 · 김명섭 지음
전술삼국지 1~5 나관중 원작 배준 글 · 그림	군사영어 조용만 · 최병욱 지음	미래전과 동북아 군사전략 김남철 · 김홍철 · 연제국 · 최영찬 · 허광환 지음	한국군의 군구조와 군수부대의 변화 정찬환 지음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 김태진 지음	미중 패권경쟁 시기 동북아 해양전략 임경한 · 박남태 · 유병준 · 정재호 · 오순근 지음	